

## 메시지 6

### 주님께 열려 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삶

성경: 창 2:7, 롬 9:21-23, 고후 4:7, 딤후 2:20-21

#### I.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의 첫째 단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었다 — 창 2:7.

A.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삼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 롬 9:21-23, 고후 13:14.

1.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많은 그릇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존귀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고후 4:7.

2. 귀한 그릇들은 신성한 본성(금)과,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으로 이루어진다 — 딤후 2:20-21.

3. 하나님은 그릇들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 — 롬 9:23, 고후 3:18, 4:6-7.

a.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긍휼에서 나오고 그분의 긍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의 긍휼에 대해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 롬 9:15-16, 18.

B. 바울의 열네 서신을 요약하면 두 단어, 곧 ‘열린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릇들이 믿는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을 그분께 계속 열어 두는 것임을 보여 준다 — 고후 3:16.

a.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이 주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없다 — 엡 3:17.

b. 열린 그릇이 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로 채워지도록 자신을 계속 열어 두는 것이다 — 고후 13:14.

2.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 두고 자신의 행함을 멈추는 생활이다 — 막 12:30, 요일 4:16-21.

a.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릇은 다만 주님을 담으며,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누린다.

b.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 두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 엡 3:17.

c. 이것이 합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 갈 2:20.

3.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저는 제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을 향해 닫아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당신께 완전하고 철저히 계속 열어 두기를 선택합니다.”

a. 이러한 합당한 기도, 더욱 깊은 기도, 참된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려 있게 한다 — 엡 3:17-19.

- b.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살아 있고 열린 그릇이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울 길을 얻으실 것이다 — 엡 3:14-18.
- c. 주님은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 — 엡 3:19.

**I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써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체험을 갖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 롬 8:2, 6, 10-11, 엡 3:16-17상.**

- A.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조금씩 날마다 받아들이되, 천천히, 한결같이, 거듭거듭 받아들이어야 한다 — 고후 13:14, 마 6:11, 시 68:19.
  - 1. 우리 안에 단 한 번에 성취되는 영적인 일은 거의 없다. 그보다 우리 신체의 생명에서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영적인 일은 거듭 반복되어야 한다 — 요 6:57하, 4:14, 고전 10:3-4.
  - 2.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한 번에 다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신성한 공급은 조금씩 조금씩 주어진다.
- B.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결같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덜 특별하고 더 정상적일수록 더 좋다 — 골 1:27, 3:4, 엡 3:16-17상.
- C. 하나님께서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믿는 이들로써 우리의 생활 또한 조용하고 차분해야 한다. 매일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단순하게 신성한 분배를 받아들이는 평범한 생활을 해야 한다 — 롬 8:6, 살전 5:23, 살후 3:16.
- D. 우리의 운명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지속적인 분배 아래서 평범한 방식으로 살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 마 6:11, 32-34, 24:40-41.
- E. 믿는 이들로써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믿음으로 체험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며,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모든 일을 하기 원하신다 — 엡 3:17상, 히 11:1.
- F.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정상적이 되며, 우리의 영성은 극적인 것이 전혀 없이 규칙적이고 정상적이 될 것이다 — 롬 8:4, 6, 갈 5:22-23.

**III. 신성한 분배 안에서의 평범한 일상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부합한다 — 딤후 1:4, 엡 3:9.**

- A. 그리스도, 그 영, 삼일 하나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대한 체험들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 엡 3:16-17상.
- B.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마련해 주신,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것들은 기적적이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딤후 1:4, 엡 3:9.
- C. 거듭남은 가장 큰 기적이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처럼 거듭남은 정상적이지만 기적적인 것,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정상이다 — 요 3:3, 5-6, 8, 벰전 1:23.
- D.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총체를 받는 것은 기적적인 것이다 — 롬 10:12, 렘 33:3.